

힘빠진 호랑이... 첫 2연속 루징 시리즈



SK에 3-4 끝내기 패배
양현종 개막 8연승 실패
최형우 10년 두자릿수 홈런

‘호랑이 군단’이 시즌 첫 3연패에 이어 첫 연속 루징 시리즈를 기록했다.

KIA 타이거즈가 14일 인천 SK 행복드림구장에서 열린 SK와이브스의 시즌 5차전에서 3-4, 끝내기 패를 당했다. 전날 11회 연장 승부 끝에 5-3으로 3연패를 끊었던 KIA는 수비 실수에 흔들리며 주말 시리즈를 1승2패, 루징시리즈로 마감했다. 앞서 주중 안방에서 만났던 kt에 1승2패를 기록했던 KIA의 시즌 첫 연속 루징 시리즈다.

KIA는 2승4패로 한 주를 마감했지만 2위 NC 다이노스에 1.5게임 차 앞서 1위 자리를 유지했다.

임기영(KIA)과 켈리(SK)가 맞붙었던 지난 12일, 2-0으로 앞선 6회 2루수 안치홍의 포구 실책과 포수 김민식의 송구 실책이 나오면서 대거 5실점을 하며 역전패를 기록했던 KIA는 14일에도 아쉬운 수비로 승리를 지키지 못하고 뒷심싸움에서 졌다.

9번 타자 겸 중견수로 선발 출장한 김호령이 공격에서 웃고, 수비에서 울었다.

2회 2사 만루에서 좌익수 플라이로 물러났던 김호령이 3회 다시 2사 만루에서 등장했다. 김호령은 SK 선발 김태훈의 타구를 좌측으로 보내며 2타점 2루타를 기록했다.

5회 2사 1루에서는 전날 연타석 투런포로 연장 승부 끝에 팀의 3연패를 끊어냈던 최형우가 다시 한번 손맛을 봤다. 이 홈런으로 최형우는 10년 연속 10홈런을 기록한 10번째 타자로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3-0으로 맞선 5회말 2사에서 양현종이 배터리로 호흡을 맞췄던 이흥구에 좌월 솔로포를 허용했다. 조용호에게 선두 타자 안타를 내준 6회에는 로맥에게 적시타를 맞으면 양현종이 두 번째 실점을 남겼다.

1점 차로 추격당한 7회 중견수 김호령의 아쉬운 수비가 나왔다. 김동엽의 내야안



지난 13일 인천 SK행복드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와 SK 와이브스의 경기. 11회초 1사 1루에서 KIA 최형우가 역전 투런 홈런을 치고 환호하고 있다. <KIA타이거즈 제공>

타에 이어 정의운이 타석에 섰다. 김호령이 중견수 플라이로 처리하는 것 같았지만 공은 글러브가 아닌 바다에 먼저 떨어지면서 뒤로 흘렀다. 그사이 타자주자까지 2루로 향하면서 무사 2-3. 양현종이 삼진으로 이흥구를 돌려세웠지만 김성현의 희생플라이로 3-3 동점을 허용했다.

양현종에 이어 김윤동이 등판한 8회 유니폼을 바꿔 입은 두 포수의 어깨 대결이 눈길을 끌었다. KIA가 8회초 나지완과 최형우의 연속 안타로 무사 1-2루를 만들었

다. 그러나 나지완을 대신해 대주자로 들어간 신중길이 3루로 향하다가 이흥구의 송구에 아웃됐다. 타석에 있던 이범호까지 삼진을 당하면서 KIA의 추격 분위기가 꺾겼다. 8회말에는 김민식이 우전안타로 출루한 SK의 선두타자 나주환의 도루를 막아내며 응수했다.

하지만 9회초 삼자범퇴로 허무하게 KIA의 정규시즌 마지막 공격이 끝났다. 이어 KIA가 박지훈을 마운드에 투입했지만 초구로 김동엽의 끝내기 홈런이 나오면

서 경기가 순식간에 종료됐다. 3회초 김주찬의 안타성 타구를 누야했던 좌익수 김동엽은 동점 득점에 이어 결승 홈런까지 기록하며 KIA를 울렸다.

한편 이날 패배와 함께 김일웅(상승)의 8경기 8연승을 울러다웠던 양현종의 8연승 도전은 실패로 끝났다. 하지만 양현종은 최정을 상대로 이날 4번째 탈삼진과 함께 통산 1100탈삼진을 기록했다. 통산 24 번째다.

인전=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덕아웃 T 특독

▲잘 보여야겠어요=투타두둑 함께 성장하는 경북고 동기 임기영과 김윤동이. 두 친구는 올 시즌 막강 4선발과 득점한 필승조로 KIA 마운드의 핵심 선수로 역할을 하고 있다. 시즌 예상과는 다른 구도다. 시즌 전 김윤동은 선발, 임기영은 불펜 핵심 자원으로 꼽혔다. 매 경기가 해피엔딩은 아니다. 임기영이 선발로 나선 지난 12일, 임기영은 이날 2-0으로 앞선 6회 SK의 선두타자 조용호를 중전 안타로 내보낸 뒤 2루수 안치홍과 포수 김민식의 실책 등으로 위기를 겪었다. 결국 2-2 동점을 허용하고 2사 2-3루에서 임기영이 물러났고, 이어 등판한 친구 김윤동이 이재원에게 스리런을 맞으면서 2-5로 역전됐다. 임기영의 기록은 5.2이닝 4실점 1자책이 됐다. 다음 날 임기영은 “뒤에서 운동이의 승리를 날려버리고 싶다고 농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반대로 이재내가 운동이한테 잘 보여야겠다”며 “운

임기영 “운동이 홈런 맞고 미안해 했다” KIA 덕아웃 찾은 이흥구 “사구 안돼” 최형우 “팀 구한 홈런, 당연히 기뻐다”

동이 홈런을 맞고 나서 많이 미안해 했다. 괜찮다. 원래 성격이 금방 잘 잊는다”고 웃었다.

▲수광아 밥 먹어라=어색한 듯 어색하지 않았던 이적생들이었다. KIA와 SK의 주말 3연전은 4대4 트레이드 이후 두 팀의 첫 만남으로 관심을 끌었다. 시리즈 첫 경기가 열렸던 12일 경기 전 KIA 선수가 된 이명기와 김민식 그리고 SK의 이흥구와 노수광이 나란히 서서 팬들 앞에 인사를 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3연전 내내 이적은 적지가 된 상대 덕아웃을 찾아 친정 식구들과 만남을 가졌던 이적생들. KIA 덕아웃에 있던 노수광을 향해 친정식구들은 “수광아 밥 먹어라”는 말 등을 하며 따

뜻하게 맞았다.

▲맞추지만 말아 달라고 해주세요=14일 모처럼 8번 포수로 선발 출장한 SK 이흥구가 KIA 덕아웃을 찾아 옛 동료와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홍구 형 전역 분석 나왔다. 어떻게 공략하는 지 알고 있다”는 한승혁의 농담에 이흥구는 “(양)현종이 형이 맞춰버린다고 하더라(웃음). 타격감도 좋지 않은데 맞추지 말아달라고 해달라”며 돌아갔다. 하지만 이흥구의 엄살이었다. 첫 타석에서 큼직한 좌익수 플라이타구를 날렸던 이흥구는 두 번째 타석에서는 양현종을 상대로 좌월 솔로포를 터트렸다. 8회초 무사 1-2루 수비에서는 대주자로 나온 신중길의 3루 도루까지 저지하

며 SK의 4-3, 끝내기 승에 기여했다.

▲터져버려라=가슴이 뻥 뚫리는 시원한 홈런이었다. 지난 13일 경기의 주인공은 ‘해결사’ 최형우였다. 최형우는 이날 1-3을 뒤진 9회초 1사 1루에서 네 번째 타석을 맞았다. 앞선 세 타석에서는 볼넷과 병살타를 포함해 안타를 기록하지 못했던 최형우. 그러나 네 번째 타석은 달랐다. SK 서진용의 127km짜리 포크를 받아 비거리 125m의 동점 홈런을 날렸다.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다. 11회초 1사 1루에서는 채병용의 좌구를 받아 다시 한번 우측 담장을 넘기며 5-3 승리의 주인공이 됐다. 최형우는 동점 홈런이 나온 뒤 평소와 다르게 주먹을 불끈 쥐고 환호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형우는 “팀을 구했는데 당연히 기뻐다. 맞는 순간 ‘터져버려라’ 이런 기분이었다(웃음)”며 “상대가 몸쪽 승부를 많이 하는데 1사 1루니까 땅볼 유도를 위해 몸쪽공을 던질 것으로 생각했다. 최근 슬럼프이기도 해서 개인적으로나 팀으로서 중요한 홈런이었다”고 밝혔다.

인전=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 동성고 황금사자기 아쉬운 탈락 덕수고에 연장 승부치기 4-5 패배

광주 동성고가 황금사자기 결승으로 가는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했다. 동성고는 14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덕수고와의 제 71회 황금사자기 전국 고교야구대회 결 주망리코 왕중왕전 4강전에서 연장전 끝에 4-5로 패했다. 볼넷 두 개로 맞은 1회초 1사 1-2루 위기

에서 선취점을 내준 동성고는 연속안타로 두 번째 실점을 했다. 동성고는 0-2로 뒤진 1회말 2사 만루 기회를 잡았지만 득점에 실패, 3회말 김민호의 적시타로 1점을 만회했다.

그러나 5회초 1사에서 덕수고 이인혁의 3루타에 이어 스쿼즈 번트가 나오면서 다

시 점수는 1-3으로 벌어졌다. 그러자 동성고가 5회말 2사 2루에서 나온 허진의 2루타로 다시 추격했다. 7회에는 한준수와 이명기의 연속 2루타로 동점까지 만들었다. 결국 뒷심 싸움이 전개된 끝에 경기는 10회 연장 승부치기로 들어갔다. 8회부터 마운드를 책임진 동성고 에이스

김기환이 덕수고 대타 양홍영의 번트를 막았지만 3루 도루를 저지하려던 포수 한준수의 송구가 뒤로 빠지면서 실점이 기록됐다.

동성고는 10회말 승부치기에서 김경훈의 희생번트와 전정배의 볼넷으로 1사 만루를 만드는 데 성공했지만, 지강혁의 2루 땅볼로 한 점을 만회하는 데 그치며 어렵게 결승 문턱에서 돌아섰다. 진중고는 앞서 8강에서 인천 동산고에 0-7로 졌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김시우, 우승컵 들까

PGA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선두에 2타 뒤져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활동하는 한국 골프의 영건 김시우(사진)가 통산 2승 고지를 향해 불꽃 타를 휘둘렀다. 김시우는 14일 플로리다주 폰테 베드라비치의 소그래스 TPC 스타디움 코스(파72)에서 열린 PGA 투어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3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1개를 묶어 4언더파 68타를 적어냈다. 중간합계 7언더파 209타를 친 김시우는 공동 선두 그룹에 2타 뒤진 단독 4위다. 이날 보여준 샷 감각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선두를 따라잡는 것도 가능한 상황이다.

2014~2015년 PGA의 2부 투어인 웹닷컴 투어에서 경험을 쌓고 PGA 투어에 오른 김시우는 1부 무대 진출 후 지난해 8월 웹닷컴 챔피언십 우승컵을 들고 신인왕 후보에 꼽히는 등 한국 남자골프의 기대주로 활약하고 있다. 올 시즌엔 CIMB를 래식 공동 10위가 최고 기록이다.

2라운드에서 공동 16위로 내려앉았던 김시우는 초반부터 버디를 쓸어담으며 순위를 올렸다.

2번홀(파5)에서 어프로치샷을 홀 3m 위치까지 붙인 뒤 버디퍼팅을 성공한 김시우는 9번홀(파5)에서도 정확한 어프로치샷으로 버디를 넣었다. 10번홀(파4)에선 그린 주변 러프에서 친 6m짜리 칩



샷이 그대로 홀컵 안으로 굴러떨어지면 서 버디를 추가한 김시우는 12번홀(파4)에선 300야드짜리 드라이버샷을 앞세워 버디를 넣었다.

노승환은 3오버파 75타를 쳐 1오버파 217타로 공동 31위를 기록했고, 강성훈은 이븐파 72타로 중간합계 2오버파 218타로 공동 44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권순우 남자프로테니스 서울오픈 준우승

권순우(263위·건국대)가 남자프로테니스(ATP) 휠라 서울오픈 국제남자 챌린저대회(총상금 10만 달러)에서 준우승했다.

권순우는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테니스코트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단식 결승에서 토마스 파비아노(133위·이탈리아)에게 1-2(6-1 4-6 3-6)로 졌다. 1세트 시작 후 5게임을 연달아 떠난

권순우는 초반 좋은 흐름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2, 3세트를 파비아노에게 내줬다. 특히 3세트에서는 게임스코어 3-1로 앞서 나갔으나 이후 내리 5게임을 뺏기며 준우승으로 대회를 마쳤다.

그러나 권순우는 이번 대회 준우승으로 랭킹 포인트 60점을 얻어 다음 주 세계 랭킹에서 210위 안팎까지 순위가 오른다. /연합뉴스



오승환(35·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13일(현지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부시 스타디움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MLB) 시카고 컵스와의 경기에서 역투하고 있다.

오승환 2년 연속 두자릿수 세이브 캡스전 10세이브...한국인 김병현 이어 두번째

‘끝판왕’ 오승환(35·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시즌 10세이브를 달성해 한국인 선수로는 두 번째로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2년 연속으로 두 자릿수 세이브를 챙겼고, 한때 두 자릿수까지 치솟았던 평균자책점도 2점대로 낮췄다.

오승환은 14일 시카고 컵스와 홈경기에서 5-3으로 앞선 9회초 등판해 1이닝을 1피안타 무실점으로 팀 승리를 지켰다.

올 시즌 17번째 등판에서 5경기 연속 무실점 행진을 이어간 오승환은 시즌 1승 1패 10세이브 평균자책점 2.98로 ‘마무리 수난 시대’인 메이저리그에서도 정상급 성적을 유지하고 있다.

세이브 10개는 그레그 홀랜드(콜로라도 로키스·15세이브)에 이어 내셔널리그 2위에도 해당하는 기록이다.

오승환에게 두 자릿수 세이브는 특별한 일이 아니다. 2005년 삼성에서 프로 데뷔 후 수술로 제대로 시즌을 치르지

못한 2010년(4세이브)만 달성하지 못했을 뿐이다. 일본프로야구에서 활약한 2014~2015시즌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무대인 메이저리그에서도 올해로 2년 연속이다.

한국인 선수 중 메이저리그에서 2년 연속 두 자릿수 세이브를 달성한 건 김병현(38)뿐이다.

팀이 치른 35경기에서 10세이브를 거둔 오승환은 부상 없이 지금 추세대로 한 시즌을 보내면 46세이브를 거둘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날 오승환이 ‘디펜딩챔피언’ 컵스를 상대로 세이브를 떠낸 것도 의미가 있다. 오승환은 이번 시즌 첫 등판이었던 지난달 3일 컵스전에서 3-0으로 앞서가던 9회 윌슨 콘트레라스에게 동점 스리런을 맞고 불륜세이브를 범했다. 이후 컵스전에 등판할 기회가 없었던 오승환은 시즌 17번째 등판 만에 지구 라이벌 컵스에 깔끔하게 실을했다. /연합뉴스